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분석

김혜연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성희 (여주대학 가정학과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I. 서론

‘가족기업’은 그 용어가 최근에야 사용되었을 뿐 전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유명한 식당들은 대부분 요리비법을 보존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운영되며 일본만 하더라도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잇는 전통이 있어 가족기업이 보편적인 기업의 형태이다. 또한 대만 역시 소규모 가족기업이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가족관계보다는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 사회에서조차 가족기업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Heck, 1994).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가족기업은 경험적 인식의 수준에서 많은 기업이 가족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현재 가족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업 초기 단계에 가족기업으로부터 발전된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강한 가족주의 가치관을 기초로 ‘부-자’간의 경영특성을

지닌 중.소규모 가족기업이 많이 있으며, 도시보다는 지방, 그리고 지역에 따라 가족기업이 더 많이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가족기업은 학문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가족기업이 가정특성과 기업특성이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비가족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가족의 역할이 가족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기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Ibrahim & Ellis, 1994). 또한 미래학자들은 흔히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창업을 선호하며, 컴퓨터의 발달 및 보급으로 인한 소규모의 자영업 및 재택근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규모의 자영업 및 재택사업이 가족기업의 형태를 갖기 쉽다(김지희, 1999; 문숙재, 김지희, 1997)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가족기업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연구자료가 풍부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에 대한 인식 및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가족기업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이나 관련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즉 가족기업을 소유, 경영하고 있는 가족단위 및 가족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Aronoff & Ward, 1991)에 대한 분석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를 분석하고 관련변수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가족기업의 한정적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기업은 적어도 기업의 51% 이상을 단일가족이 소유하고,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사업의 경영 및 관리활동에 참여하고, 다음 세대의 가족구성원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리더십이 계승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업 및 조직체를 의미한다(Ibrahim & Ellis, 199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대상을 찾기란 어려우며 관련된 데이터를 얻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개념적으로 가장 유사한 소규모 자영업 및 자유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간접적 분석으로 제한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성격이다. 우리나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에 대한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가족체계에 차이를 가져오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탐색함으로써 미래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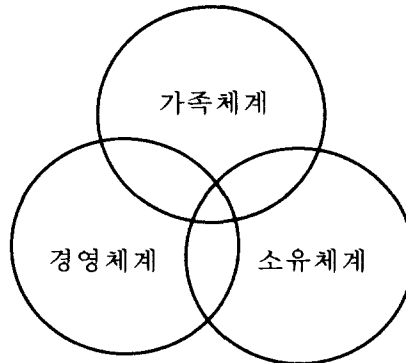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영업 및 자유업을 하고 있는 부부가계를 대상으로 가족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가족체계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된 설명변수들을 그 특징에 따라 일반적 특성, 재정관련 특성 및 자영업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가족기업은 가족구성원이 기업을 소유하고, 기업의 경영 및 관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 및 통제권을 가지며(Chruchill & Hatten, 1987),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체(Green & Pryde, 1989)로 '가정.기업'의 이중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다. 즉 가족기업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기업영역에서 생산 및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기업적 기능을 지향해야 한다(Ibrahim & Ellis, 1994). 이러한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조와 기능 간에는 필수적으로 상호작용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가족기업의 구조와 기능은 가족기업의 구성체계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그림1>.



<그림 1> 가족기업의 구성체계 : 가족체계 · 경영체계 · 소유체계

출처: Aronoff & Ward(1991). Family Business Sourcebook. Detroit, MI : Omnigraphics, Inc. p. 101.

<그림 1>에서와 같이 경영체계와 소유체계로만 구성되어 있는 비가족 기업과 달리 가족기업은 가족체계, 경영체계, 그리고 소유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각 하위체계들은 각 각 특유한 요구사항, 기대수준 및 책임수준을 갖고 있다.

가족체계는 가족기업을 소유, 경영하고 있는 가족단위 및 가족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의미한다. 가족기업내의 가족구성원은 가족구성원이면서 소유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경영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Aronoff & Ward, 1991).

따라서 한 가족구성원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우선적으로 가정생활과 가족구성원의 만족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소유자로서의 역할은 가족기업의 수익 및 이익을 달성하며 나아가 가족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경영자로서의 역할은 가족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일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가족구성원의 다중 지위 및 역할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가족의 복지 뿐 아니라 가족기업의 경영적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2.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에 대한 관련변수의 고찰

가족기업의 가족체계는 가족기업의 소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나타내므로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가족기업의 경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용현주(199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규모 가족기업은 가족구성원이 중요한 노동력의 주체로 이들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자로서의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자질, 경영이념, 사업경험 등 개인적인 경영능력이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기업 역시 전문경영인보다는 가족구성원이 소유와 경영을 책임지며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 가족구성원이 가족기업에서 맡게 되는 역할이나 참여정도는 그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특징 및 능력 뿐 아니라 가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가장 일반적인 영향요인이다. 류재우,최호영(2000)은 우리나라의 자영업 진입률과 퇴출률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가족기업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개인의 연령이 유의한 변수임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교육수준은 흔히 기업경영을 위한 성취동기, 지식, 기술 등과 관계가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Berney & Owen, 1985; Casson, 1991)이 성공적인 가족기업의 요인으로서 개인의 기업가적 정신(entrepreneurship)을 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가족구성원의 성별은 때로 가족기업에의 참여정도에 대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여성기업가나 혹은 가족기업에서의 여성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김영옥, 1998; 애버딘 외, 김흥기, 역, 1993) 여성은 기업경영보다는 가정일에 적합하다는 사회문화적 편견이라는 장애를 겪게 되는 경향이 높다(Moore et al., 1992).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지표인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등(김순미, 1998)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유발 요소로 작용한다. 가계의 총소득 및 재정상태는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투자액이 많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은 가족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증가시킨다(Bian & Heck, 1995).

가족의 가족구조, 가족크기 및 자녀관련 특징은 가정영역에서의 요구수준과 이에 따른 노동시간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직접적으로 가족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및 노동 집중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경우 경영자는 기업운영에 참여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충족에 사용함으로써 가족기업의 경영효율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oscocco et al., 1991). 기혼여성이 재택근무 형태의 가족기업을 선호하거나 선택하는 원인은 이러한 가족에서의 역할부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문숙재, 김지희, 1997).

이상과 같은 요인 이외에 가족기업의 기업적 특성 역시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가족기업의 기업재정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일반적인 지표인 기업규모, 매출액, 수입 등은 가족구성원 및 비가족 고용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산출이다(Bian & Heck, 1995). 또한 기업의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가계의 지출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자녀양육비와 기타 생활비 등의 항목에서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어 간접적 잠재소득을 얻을 수 있다(Pratt, 1986). 가족기업의 산업별 종류는 가족기업에서 요구하는 업무 및 근무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정도와 집중도 및 비가족구성원의 고용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실태와 이에 차이를 가져오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탐색에 있다. 이 때 가족기업의 가족체계는 가족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적 구성을 기초로 본인 혼자, 본인 + 가족/친지, 본인 + 종업원, 그리고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된 독립변수들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 재정관련 특성 및 가족기업 관련 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개인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는 조사대상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가족형태, 가족크기, 6세 자녀 유무, 6세 미만 자녀수가 포함되었으며 재정관련 특성은 주택소유여부,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총소득, 총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및 가계내 소득원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족기업 관련 특성은 기업규모, 사업장 위치, 산업종류, 순수입, 매출액, 최소 희망소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모델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가족기업 가정의 일반적 특성, 재정관련 특성, 가족기업 관련 특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이러한 변수들에 따른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의 차이를 밝힌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의 1998년도 한국가가패널조사(KHPS)이다. KHPS는 가계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로서, 다단계층화확률표본방식(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의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한 6,320명으로 구성된 자료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본 연구의 연구범위에 따라 남편 혹은 부인이 소규모 자영업 및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부가계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사용된 최종표본은 713가계였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정관련 특성 및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 평균, 비율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정관련 특성 및 가족기업 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 검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일반적 특성, 재정관련 특성, 가족기업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표 1>, <표 2> 및 <표 3>과 같다.

2.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

기업의 가족체계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가족체계구성을 보면 본인 혼자 하는 유형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조사대상자 가족은 본인 + 종업원유형, 본인 + 가족/친지유형, 그리고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본인 혼자하는 유형이 약 50%로 나타난 것은 자영업 종사자수가 1인인 비율이 40.6%였던 여성통계연보(1999)와 유사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가족기업이 본인의 노동력을 기초로 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형태를 가장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표 4 >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

(N = 713)

가족체계유형	빈 도	백 분 율
본인 혼자	335	47.0
본인 + 가족/친지	162	22.7
본인 + 종업원	163	22.9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	53	7.4

3. 조사대상자의 특징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 따른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 따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체계유형 분석결과

(N=713)

가족체계 유형		본 인 (335)	본인+ 가족/친지 (162)	본인+종업원 (163)	본인+가족/ 친지+종업원 (53)	F 값
변 수						
연령		43.63	45.81	40.67	41.25	9.88***
Duncan		A	A	B	B	
교육수준		10.88	10.30	11.06	9.11	17.80***
Duncan		B	B	A	B	
가족수		4.02	3.94	4.02	3.70	1.67
Duncan		A	AB	A	B	
6세미만자녀수		0.43	0.47	0.55	0.34	1.53
Duncan		AB	AB	A	B	
변 수		N %	N %	N %	N %	χ^2
성별	남자	248 34.78	148 20.76	145 20.34	49 6.87	34.149***
	여자	87 12.20	14 1.96	18 2.52	4 0.56	
가족 형태	핵가족	295 41.37	139 19.50	143 20.06	48 6.73	0.98
	확 대	40 5.61	23 3.23	20 2.81	5 0.70	
6세자 녀유무	유	101 14.17	52 7.29	62 8.70	14 1.96	4.01
	무	234 32.82	110 15.43	101 14.17	39 5.47	

*** p < .001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가장 많았던 것은 본인 + 가족/친지 유형이었으며 그 다음은 본인 혼자 유형이었다. 이러한 두 가족체계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연령은 나머지 두 가족체계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 종업원의 가족체계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적은 가족구성원의 경우 본인 + 종업원의 가족체계 유형의 가족기업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역시 가족체계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본인 혼자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인 경우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가족체계 유형의 비율이 대략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은 본인 혼자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체계 유형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이 가족기업을 경영하게 될 때 가족이나 종업원 등의 도움 없이 본인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소자영업의 형태를 가질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던 반면 가족체계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되었던 가족상황이나 자녀관련변수는 무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문숙재, 김지희, 1997)와는 상이하였다.

나. 조사대상자의 재정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기업의 가족체계유형 차이

조사대상자의 재정관련 특성에 따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재정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체계 유형분석

(N=713)

가족체계 유형 변수	본 인 (335)	본인+ 가족/친지 (162)	본인+종업원 (163)	본인+가족/ 친지+종업원 (53)	F 값/ χ^2
근로소득 Duncan	2687.0 AB	2434.6 BC	2921.4 A	2161.8 C	4.33**
비근로소득 Duncan	1018.3 A	855.0 A	1208.6 A	848.0 A	0.71
총소득 Duncan	3684.8 AB	3310.1 B	4130.0 A	3009.8 B	3.09*
총지출 Duncan	2076.0 A	1883.8 AB	2078.2 A	1719.4 B	2.83*
금융자산 Duncan	1474.1 AB	1760.5 A	1600.9 AB	1163.1 B	1.65
실물자산 Duncan	7440.4 A	7597.7 A	7569.4 A	7016.3 A	0.99
총자산 Duncan	8405.4 A	8466.4 A	8859.6 A	7452.4 A	0.47
총부채 Duncan	743.4 A	577.5 A	566.8 A	650.7 A	0.87
순자산 Duncan	7662 A	7885 A	8293 A	6802 A	0.57
소득원수 Duncan	1.633 A	1.395 B	1.4295 B	1.321 B	7.22***
변수	N %	N %	N %	N %	N %
주택 유	194 27.21	103 14.45	94 13.18	28 3.93	2.50
소유 무	141 19.78	59 8.27	69 9.68	25 3.51	

* p < .05, ** p < .01, p < .001

조사대상자의 재정관련 특성 중 근로소득, 총소득, 총지출, 소득원수에 따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 종업원 유형이 가족기업의 근로소득, 총소득, 총지출이 유의하게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본인 혼자 유형, 본인 + 가족/친지 유형의 순이었고,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 유형이 유의하게 가장 적었다. 가계내 소득원수는 본인 혼자 유형의 경우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 유형이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지출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인 + 종업원 유형이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 만큼 지출이 많은 반면, 여기에 가족/친지의 참여가 있게 되면 소득은 적지만 지출비가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친지의 가족기업 참여는 가족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인건비

감소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인 혼자 유형의 가족체계 유형에서 가계내 소득원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이러한 가족체계 유형의 가족기업이 영세하여 충분한 재정상태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실정을 반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재정관련 특징 중 자산과 부채보다는 현재 가계의 소득과 지출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일정 기간에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의 흐름(flow)이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 조사대상자의 기업관련 특징에 따른 가족체계 유형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기업관련 특징에 따라 가족체계 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기업관련 특징은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현재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에서 희망하는 최소 소득을 제외한 모든 기업관련 특징에 따라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은 차이가 있었다. 본인 + 종업원의 유형과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 유형의 가족체계 유형은 그밖의 가족체계 유형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 가족체계 유형의 경우 기업규모, 순수입, 매출액이 가장 많았다. 인적 구성원을 의미하는 기업규모를 제외하고 순수입과 매출액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러한 가족체계 유형이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고 종업원의 노동력을 보조로 하여 탄탄한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본인 + 종업원 가족체계 유형에서 최소 희망소득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이러한 가족체계 유형을 갖고 있는 가족기업이 설비와 시설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지향하는 기업형 가족기업(김지희, 1999)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의 종류와 사업장 위치 역시 가족체계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종류에 있어서 건설업은 가족체계 유형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도소매업은 본인 혼자 유형이나 본인 + 가족/친지의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소매업의 가족기업의 경우 주로 본인 혼자나 혹은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운수업과 기타에서도 본인 혼자 유형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 이러한 업종의 가족기업이 영세적인 경영형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인 혼자 가족체계 유형과 본인 + 가족/친지 가족체계유형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는 거주지와 작업장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인 + 종업원 가족체계 유형과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의 가족체계 유형은 사업장의 위치가 작업장인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사업장의 위치가 거주지일 때 주로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작업장이 사업장 위치일 경우 종업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가족기업의 유형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참여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조사대상자의 기업관련 특징에 따른 가족체계 유형 차이

(N=713)

가족체계 유형 변수	본 인 (335)	본인+ 가족/친지 (182)	본인+종업원 (163)	본인+가족/친지 +종업원 (53)	F 값/ χ^2					
기업규모 Duncan	1.000 B	1.364 B	4.853 A	5.09 A	38.34***					
순수입 Duncan	1912.7 C	2325.1 B	3078.5 A	3203.8 A	31.33***					
매출액 Duncan	6287 B	10344 B	18903 A	19560 A	15.36***					
최소희망소득 Duncan	348.1 A	320.0 A	500.0 A	400.0 A	1.83					
변수	N	%	N	%	N	%	N	%	χ^2	
변경 경험	무	305	42.78	150	21.04	149	20.90	47	6.59	0.83
	유	30	4.21	12	1.68	14	1.96	6	0.84	
중단 의사	유	57	7.99	27	3.79	15	2.10	6	0.84	6.33
	무	278	38.99	135	18.93	148	20.76	47	6.59	
사업장 위치	거주지	162	22.72	81	11.36	37	5.19	15	2.10	38.88***
	작업장	173	24.26	81	11.36	126	17.67	38	5.33	
산 업 종 류	건설업	30	4.21	14	1.96	33	4.63	2	0.28	101.48***
	도소매	145	20.34	94	13.18	59	8.27	33	4.63	
	운수	80	11.22	6	0.84	4	0.56	1	0.14	
	기타	80	11.22	48	6.73	67	9.40	17	2.38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족기업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가족체계유형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련변수를 탐색함으로써 앞으로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가족기업에 대한 선행연구의 미비와 접근가능한 자료의 제한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의 범위를 소규모 자영업 및 자유업으로 한정짓고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 때 가족체계 유형은 가족구성원의 참여정도에 따라 본인 혼자, 본인 + 가족/친지, 본인 + 종업원, 그리고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개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족체계 유형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된 독립변수들은 그 특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 재정관련 특성 및 기업관련 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은 대략 40대의 고졸 수준의 남성이 경영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산업종류로는 도소매, 수리업 등이 가장 많았고 본인 포함 평균 2.3명의 소규모였다. 사업장 위치는 거주지와 작업장의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어 일반 기업에 비해 거주지에 작

업장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아 가족기업이 채택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재정관련 특징과 기업관련 특징에 포함된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경영의 규모가 적었지만 현재 기업에서 희망하는 최소 희망소득이 평균 370만원과 같이 일반 임금근로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업이 영세적 기업이라는 일반적 편견(최태룡, 1991)과 달리 소규모이지만 사회경제적 비중이 크며, 이에 따라 일반 임금근로자들이 가족기업의 창업을 고려하게 되거나 가족기업의 운영을 지속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이 미국과 달리 퇴출율이 높지 않다는 류재우,최호영(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은 본인 혼자 하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영업의 대부분이 1-2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이라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족기업 역시 소규모 형태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기업이 소규모로 경영될 경우 조직구성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과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의 특징을 갖기 쉽다(용현주, 1998). 따라서 소규모 가족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차이를 가져온 변수는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변수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본인 혼자 가족체계 유형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본인 + 종업원의 가족체계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족상황이나 자녀관련 변수들이 무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가족기업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참여정도는 가족이나 자녀에 의한 요구수준이나 책임보다는 개인적 특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가족과 자녀에 대한 책임이 많이 요구되는 시기에서조차 가족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족구성원과 기타 다른 노동력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조사대상자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차이를 가져온 재정관련 특징은 근로소득, 총소득, 총지출 및 소득원수였다. 이것은 가족기업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참여에 있어서 가계의 재정상태와 소득원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산과 같은 자금의 저장(stock)보다는 유동(flow)과 관계가 있는 변수가 보다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가계의 재정특징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 + 종업원 유형의 가족체계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지만 지출 역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지의 가족기업 참여가 있게 되면 소득이 적어지지만 지출비가 적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친지의 노동력과 그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기업관련 특징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기업의 가족체계 유형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모, 순수입, 매출액 등의 기업특징은 본인

+ 종업원의 유형 및 본인 + 가족/친지 + 종업원 유형과 본인 혼자 유형 및 본인 + 가족/친지의 유형이 뚜렷이 구별되어서 종업원의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본인 혼자 유형의 가족체계의 비율이 높은 것과 같이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족체계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기업의 사업장 위치는 종업원이 있는 두 가지의 가족체계 유형을 제외한 본인 혼자 유형과 본인 + 가족/친지 유형에 있어서 거주지와 작업장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이것은 본인 혼자 혹은 가족/친지의 참여가 있는 가족기업의 경우 거주지에서 기업을 하는 재택 가족기업의 형태가 많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결과이다.

< 참고문헌 >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5.
- 김영옥(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김지희(1999). 가족기업(Family Business) 가정에 관한 연구: 이론 및 실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재우·최호영(2000). 자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한국노동경제논집월례 학술발표회**.
- 문숙재, 김지희(1997). 가족자원활용을 위한 재택사업(Home-Based Business)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43-55.
- 용현주(1998). **1998년도 한국의 소규모 기업 경영실태분석**. 서울 : 국은경제연구소.
- 최태룡(1991). 구중간층의 형성과 사회의식 : 전주시 자영업자층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패트리셔 애버딘, 존 나이스비트 저, 김홍기(역)(1993). **메가트렌드 2000**. 서울 : 한국경제 신문사.
-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통계연보**.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Aronoff, C. E. & Ward, J. L.(1991). **Family Business Sourcebook**. Detroit, MI : Omnigraphics, Inc, 98-119.
- Berney, R. E. & Owen, E.(1985).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mall Business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13, 681-691.
- Bian, J., & Heck, R. K. Z.(1995) What We Can Learn about Family Businesses over Tim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88-1992, Family Business Annual Research Papers. **IFBPA**, vol.1, 39-63.
- Casson, M.(1991). **The Entrepreneur : An Economic Theory**. Hampshire, England : Gregg Revivals.
- Ibrahim, A. B. & Ellis, W. H.(1994). Family Business Management : Concepts and

Practice. *Information and Management*, 23, 321-330.

- Chruchill, N. C. & Hatten, K. J.(1987). Non-Market-Based Transfers of Wealth and Power : A Research Framework for Family Business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3), 51-63.
- Green, S. & Pryde, P.(1989). *Black Entrepreneurship in America*. New Brunswick. NJ : Transactrion.
- Loscocco, K. A. et al.(1991). Gender and Small Business Success : An Inquiry into Women's Relative Disadvantage. *Social Forces*, 70(1), 65-85.
- Moore, D. P. et al.(1992). Stepping Off the Corporate Track : The Entrepreneurial Alternative.(eds.) Skaren U. & F. Leong. *Woman Power*. NY : Sage Publications, 85-109.
- Pratt, J. H.(1986). Literature on Home-Based Business, Work and The Family-Owned Business and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he Population of Family-Owned Business (*Final Report, SBA-9202-AER-85*). Washington, D.C.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모든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N = 713)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590	82.7
	여성	123	17.3
연령	35세 미만	109	15.3
	35 - 44세	345	48.4
	45 - 54세	150	22.4
	55세 이상	99	13.9
교육수준	중학교	210	29.5
	고등학교	356	49.9
	대학교 이상	147	20.6
가족형태	핵가족	625	87.7
	확대가족	88	12.3
6세미만 자녀유무	유	229	32.1
	무	484	67.9
연속형 변수		Mean	S. D.
연령 (세)		43.28	9.23
교육수준(년)		11.39	3.15
가족 수(명)		3.98	1.03
6세미만 자녀수(명)		0.46	0.74

<표 2> 조사대상자의 재정적 특성(모든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N = 713)

연속형 변수		Mean	S. D.
근로소득(만원/년)		2644.20	1595.48
비근로소득(만원/년)		1012.05	2353.31
총소득(만원/년)		3651.55	2918.41
총지출(만원/년)		2006.39	1047.07
금융자산(만원)		1545.43	1728.23
실물자산(만원)		7475.59	7379.35
총자산(만원)		8452.21	7570.36
총부채(만원)		658.45	1364.10
순자산(만원)		7792.83	7658.19
소득원수(명)		1.51	0.69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주택소유	유	419	58.8
	무	294	41.2

<표3> 조사대상자의 기업적 특징(모든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N = 713)

연속형 변수		Mean	S. D.
기업규모(명)		2.30	4.66
기업순수입(만원/년)		2369.23	1503.05
기업 매출액(만원/년)		11339.13	21042.10
기업에서의 최소희망소득(만원/월)		370.27	205.47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사업장 위치	거주지	295	41.4
	작업장	418	58.6
사업의 산업종류	건설업	78	10.9
	도소매, 수리업	331	46.4
	운수, 통신, 금융보험	89	12.5
	기 타	215	30.2